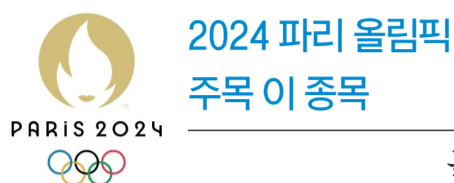


‘어게인 2016’ 금빛 스윙 재현한다



여자부 고진영·양희영·김효주
남자부 김주형·안병훈 출격
코다 등 세계 톱 랭커 ‘총출동’

2024 파리 올림픽은 골프 종목 사상 다섯 번째 올림픽 무대다.

골프는 1900년 파리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대회를 끝으로 한동안 올림픽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후 112년 동안 골프가 차츰 대중화, 세계화하면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를 통해 올림픽 무대에 복귀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선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박인비(한국), 2021년 도쿄에선 잭슨 쇼플리와 넬리 코르다(이상 미국)가 금메달을 가져갔다.

남녀 개인전으로 열리는 골프는 각 60명씩 출전하며 지난달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출전권이 분배됐다.

세계 랭킹 15위 이내는 한 나라에서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고 16위부터는 국가당 2명이 상한선이다.

남자부 경기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여자부 경기는 7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르 골프 나쇼날 올림픽 코스에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된다.

한국 골프는 2016년 박인비의 금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여자부에선 고진영·양희영·김효주, 남자부에선 김주형과 안병훈이 출격한다.

올림픽 경험이 모두 있는 여자부 삼총사는 2020 도쿄 대회의 아쉬움을 씻겠다는 각오다.

당시 여자대표팀은 세계랭킹 2위 고진영, 3위 박인비, 4위 김세영, 6위 김효주로 구성된 최강 전력을 자랑했으나 최고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쳤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5승의 세계랭킹 3위 고진영이 자존심 회복의 선봉에 선다.

고진영은 올 시즌 아직 우승은 없으나 지난 3주간 출전한 2개 대회에서 연속 톱 10에 진입하며 기세를 끌어올렸다.

2016년 리우 대회 공동 4위에 올랐던 양희영은 8년 만에 올림픽 코스를 밟는다.

양희영은 올림픽 출전권 배분 마지막 대회였던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따냈고 현재 세계 4위에 올라 있다.

남자부에서는 패기의 김주형이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다.

김주형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2승을 달성했고, 3승째에는 타이거 우즈 이후 26년 만의 최연소 기록을 작성했다.

지난달 24일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선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치열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안병훈은 아직 PGA 투어 우승은 없으나 올해 준우승 1차례를 포함해 톱 10에 5차례 진입하며 안정적인 기량을 뽐내고 있다.

다만 올해는 이전 두 대회와 달리 세계 톱 랭커들이 총출동해 필드 위 경쟁이 거셀 전망이다.



고진영

리우 대회 당시에는 Zika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정상급 선수들이 상당수 불참해 골프의 올림픽 퇴출론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9일 기준 남자부에서는 세계랭킹 15위 이내 선수 가운데 10명이 출전한다.



김주형

미국 대표팀은 세계 1위 셰플러를 필두로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쇼플리(3위), 윈덤 클라크(5위), 콜린 모리카와(6위)를 앞세웠다.

여자부에서는 세계랭킹 톱 20 가운데 18명이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미국)과 함께 성조기 마크를 달고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한다.

한편 대한골프협회는 이번 대회에선 대표팀 감독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앞선 두 대회에선 최경주와 박세리가 각각 남녀 대표팀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2위 천적’ 호랑이 1위 독주 속도



‘전반기 스윙승’ 삼성과 홈 격돌
마운드 위기 속 반가운 불방망이

사자, 호랑이 엉덩이 만질 수 있을까?

KIA 타이거즈는 ‘마운드 위기’에도 4승 2패로 후반기를 열면서 4.5경기 차 1위를 지키고 있다.

KIA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된 2위 LG 트윈스와 의 원정 경기에서는 연장전 승리까지 더해 스윙승을 만들었다.

주말 안방에서 전개된 SSG 랜더스와의 3연전에서는 선발진의 조기 강판으로 연패는 기록했지만 스윙패는 허락하지 않았다.

14일 8회 대거 7점을 만들어내는 등 시원한 공격과 주루로 13-4 승리를 거두고, 4승 2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

스윙승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SSG전 약세를 이어간 것은 아쉽다. 1위 질주 중인 KIA는 올 시즌 두 팀에게만 열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에 3승 1무 7패, SSG에도 이번 맞대결에서도 무진시리즈를 기록하는 등 4승 8패로 뒤져있다.

하지만 올 시즌 KIA에 기분 좋은 징크스가 있다. 2위만 만나면 발톱 세운 호랑이가 된다.

KIA는 지난 5월 17일 1경기 차 1위로 2위 NC

다이노스의 안방을 찾았다. 전날 부산 베어스와 4시간 40분의 연장 혈투 끝에 시즌 첫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위 수성에 비상이 걸렸던 상황, 3연전 결과에 따라 1-2위 자리가 바뀌는 결정적인 맞대결이었다.

KIA는 ‘캡틴’ 나성범의 투런 등을 묶어 7-4 승리를 거둔 뒤 이후 두 경기도 모두 승리로 장식했고, 1위를 노리던 NC는 3위로 추락했다.

LG도 연달아 KIA의 ‘2위 징크스’에 올랐다.

LG는 6월 18일 1.5경기 차 2위로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하지만 KIA가 김도영의 팀 첫 만루포 등으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고, 2위로 광주를 방문했던 LG는 2.5경기 차 3위가 돼 서울로 떠났다.

후반기 첫 시리즈에서도 2위 LG는 KIA를 상대로 스윙패를 당하면서 한때 4위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KIA는 16일부터 다시 ‘2위 승부’에 나선다. 주중 챔피언스필드를 찾는 삼성은 4.5경기 차 2위다. 2위 강세의 KIA는 앞선 삼성과의 맞대결에서도 좋은 기억을 만들었다.

1위 수성 위기 상황에서 대구를 찾은 KIA는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씩씩이 3연승으로 장식했다.

KIA가 4.5경기 차로 앞서고 있는 만큼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 1위 자리가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KIA의 목표는 1위 수성이 아니라 독주다.

다시 또 마운드 위기를 맞은 만큼 1승, 1승이 더 간절하다.

전반기 이의리와 윌 크로우의 부상 이탈로 총체적인 마운드 위기를 겪었던 KIA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마운드 비상에 걸렸다.

마무리 정해영이 부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선발 윤영철이 이탈했다. 윤영철은 13일 SSG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지만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2회를 끝으로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김진철과 척추 피로 골절 소견을 받으면서 장기간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복귀 시점은 3주 후 재검진 결과 뒤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발진의 연이은 부상이 불펜진의 과부하로 이어지면서 마운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장현식, 전상현이 마당쇠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담이 많다.

결국 KIA는 ‘화력’으로 마운드 위기를 넘겨야 한다.

최원준의 상승세가 반갑다. 지난주 소크라테스에 이어 2번 타자로 배치돼 테이블 세터 역할을 한 최원준은 11개의 안타와 4개의 볼넷을 만들면서 0.478의 주안 타율을 찍었다. 3개의 도루도 성공하면서 최원준이 ‘호타존족’의 모습을 되찾았다.

감 잡은 최원준과 김도영의 스피드, 박찬호의 센스까지 더해 ‘기동력’으로 KIA가 공격 옵션을 넓히고 승수 쌓기에 나서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적함대’ 스페인이 15일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린 유로 2024 결승전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은 뒤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적함대’ 스페인, 유로 첫 4회 우승

잉글랜드 2-1 제압

‘무적함대’ 스페인이 12년 만에 유로(유럽축구선수권대회) 정상을 탈환하며 가장 먼저 4회 우승을 달성했다.

스페인인 15일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린 유로 2024 결승전에서 잉글랜드를 2-1로 제압했다.

스페인인 1964, 2008, 2012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유로 우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 전까지 독일과 스페인이 최다 우승 공동 1위였다.

반면 잉글랜드는 2회 연속 유로 결승에 진출하고도 또다시 우승의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잉글랜드는 ‘축구 중가’로 불리지만, 1966년 자국에서 개최한 월드컵 외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 골잡이로 꼽히면서도 소속팀과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좀처럼 우승하지 못하는 해리 케인의 ‘무관 징크스’도 이어졌다.

이날 스페인에선 알바로 모라타가 최전방에 나서고 니코 윌리엄스와 다니 올모, 라민 야말이 뒤를 받쳤다. 현지시간으로 경기 전날인 13일 17번째 생일을 맞이한 스페인의 ‘신성’ 야말은 2016년 대회 때 헤나투 산시스(포르투갈)의 18세 327일을 크게 앞당기며 유로 결승전 최연소 출전 기록을 새로 썼다.

/연합뉴스

전국 장사들 장흥서 ‘한판 승부’

‘제61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오늘 개막...1026명 참가

장흥에서 전국 장사들의 모래 위 한판승부가 펼쳐진다.

‘제61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장흥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씨름협회와 장흥군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총 137개 팀, 선수단 1026명이 참가해 살바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대학·일반부 7체급(경장·소장·정장·용장·용사·역사·장사급) 개인전과 단체(7인 1팀), 여자부 3체급(매화·국화·무궁화급) 개인전으로 진행된다.

모든 경기는 맞불기(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

며 전 종별 예선전부터 8강전까지는 단판제, 준결승과 결승전은 3판 2선승제로 운영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씨름협회 유튜브 채널 ‘살바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또 오는 17일 열리는 대학부 개인전 각 체급 결승·대학부 단체전 결승, 18일 여자부 개인전 각 체급 준결승·결승(매화, 국화 6강), 19일 중학부 단체전 준결승·결승전은 MBC PLUS(MBC SPORTS +)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2023년 대한씨름협회와 3년간의 대통령기 씨름대회 유치 협약을 맺으면서, 오는 2025년까지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지난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용장급 우승자 이준형 씨(용인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청 제공)

아르헨, 코파 아메리카 16번째 우승

콜롬비아 1-0 꺾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이끈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이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 2연패와 동시에 통산 16번째 우승의 대업을 달성했다.

아르헨티나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콜롬비아를 연장 혈투 끝에 1-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직전 2021년 대회에 이어 연속으로 우승한 아르헨티나가 통산 16번째 트로피를 들려 우루과이(15회)를 제치고 최다 우승 단독 1위로 올라섰다. ‘다이얼’ 브라질(9회)과 격차도 벌렸다.

아울러 2021년과 올해 코파 아메리카를 모두 우승하고,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정상에 서며 메이저 대회를 세 차례 연속 우승하는 대업도 이뤘다.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스페인이 유로 2008·2012(유럽축구선수권대회)와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을 우승한 바 있다.

조국에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안기며 ‘축구의 신’ 칭호를 받은 메시는 ‘라스트 댄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37세인 메시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며 은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우승을 노린 콜롬비아는 어렵게 정상의 문턱에서 고개를 숙였다.

A매치 무패 행진도 28경기(22승 6무)에서 멈췄다. 공교롭게도 이 경기 전까지 콜롬비아의 마지막 패배는 2022년 2월 카타르 월드컵 예선 아르헨티나전(0-1)이었다.

/연합뉴스